

# numbers 제 55호



## 주요 내용

2020. 07.10

1.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교회 출석 중고생 중 모태 신앙 51%, 부모 개신교인 85%)
2.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교회 출석 중고생, 모태 신앙 51%, 부모 개신교인 85%

한국 교회가 정체 또는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가족종교화’이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작년 말에 발표한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회 출석 중고생의 모태 신앙 비율이 무려 51%나 되며,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개신교인 비율이 85%나 차지하고 있었다. 전도에 의한 새신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현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도 가족 영향이 절대적이고, 현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 역시 어머니가 절대적이다.

한 가지 더 발견 사항은 어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중고생들의 경우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신앙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집안이 잘 살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그 자녀의 신앙 수준이 더 높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과 행복도의 관련성이 깊은데, 다음세대 신앙까지 이 경향이 연결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55호는 한국교회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개신교 중고생들’의 교회생활과 신앙의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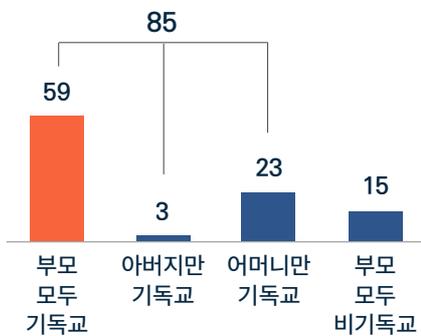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개신교 중고생 모태 신앙 비율 51%, 부모 개신교인 비율 85%

-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생(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부모 모두 개신교인은 59%로 나타났으며, 두 분 중 한 명이 개신교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학생의 85%가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분이 개신교인인 것으로 조사됨
- 개신교 중고생의 모태 신앙 비율은 51%로 조사됐으며, 교회 출석 계기를 묻는 질문에 부모를 따라 또는 가족/친척 전도로 출석한 경우가 대부분(7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신교가 점차적으로 ‘가족 종교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부모의 종교 (%)



[그림] 교회 출석 계기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 현 교회 출석 이유, “가족 영향력”이 가장 큼

- 현 교회 출석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족이 다녀서’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현 출석 교회 출석 이유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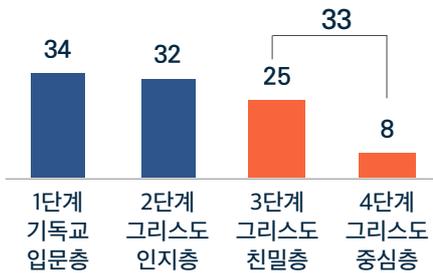
2



##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신앙 수준이 높은 경향 뚜렷!

- 개신교 중고생의 신앙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주관적 평가를 하게 한 결과, 비교적 신앙심이 있는 3~4단계 속하는 학생이 전체 33% 정도로 나타남
- 신앙 수준 3~4단계 비율을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42%)이 낮은 학생(26%)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신앙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그림] 신앙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그림] 신앙수준 중 3+4단계 비율(경제 수준별)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경제 수준은 학생 가정의 경제 수준을 주관적 평가로 응답 받음

\*\*\*신앙 단계 : 1단계 : 기독교 입문층(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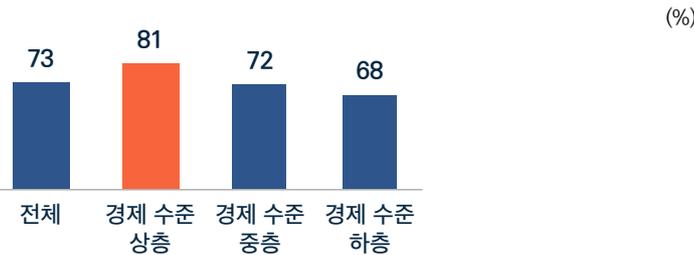
2단계 : 그리스도 인지층(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그리스도 친밀층(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그리스도 중심층(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중요성 인식에서도 나타났는데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81%)이 낮은 학생(68%)보다 더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그림]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 '중요하다'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경제 수준은 학생 가정의 경제 수준을 주관적 평가로 응답 받음

\*\*\*4점 척도 질문 :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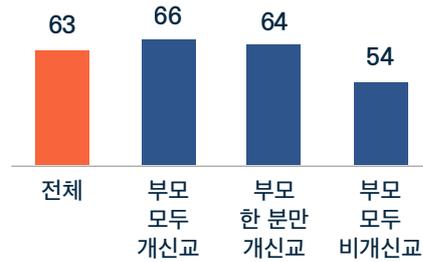
## ● 부모 모두 개신교인 자녀, 신앙 수준/삶의 만족도 높음

- 신앙 수준이 비교적 높은 3-4단계 비율을 부모 종교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개신교인 학생이 40%인데 반해,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 18%로 큰 차이를 보임
- 한편 삶의 만족도는 전체 63%로 나타났는데, 부모 종교별로 부모 모두 개신교인 학생(55%)이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

[그림] 신앙 단계 중 3+4단계 비율 (%)  
(부모의 종교별)



[그림] 삶의 만족도(부모의 종교별)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4점 척도 질문 :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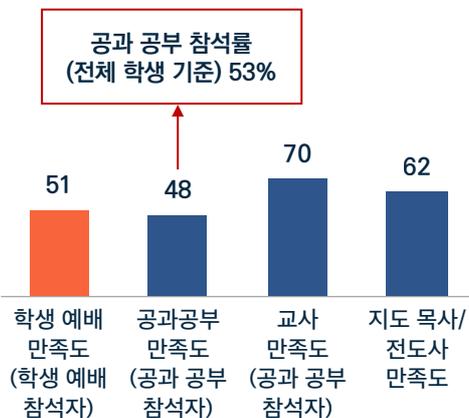
3



## 학생 예배 및 공과 공부 만족도 높지 않음

- 학생 예배 참석 학생의 예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1%(5점 척도)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며, 공과 공부 만족도는 이보다 약간 더 낮은 48%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공과 공부 참석 학생은 전체 학생의 53%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교사 만족도는 70%, 지도 목사/전도사 만족도는 62%로 각각 나타나, 지도 목사/전도사보다는 교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중고등부 전반적인 만족도는 61%임.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4차 추적 조사)」 결과에서 일반 성인 개신교인의 출석 교회 만족도가 67%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각 부분별 만족도 (%)



[그림] 중고등부 전체 만족도 (성인과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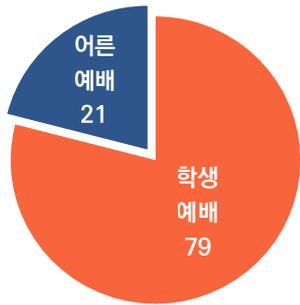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7.09~10.  
\*\*\* 5점 척도 질문, (매우+약간) 만족하다 비율임

## ● 5명 중 1명 정도의 학생, 학생 예배보다 어른 예배를 더 선호함

-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 중고생들이 주로 드리는 예배(학생 예배 있는 교회 기준)는 학생 예배 79%, 어른 예배 21%로 5명 중 1명 정도가 학생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남
- 어른 예배를 주로 드리는 이유를 물어보니 '어른 예배의 분위기/설교가 더 좋다(33%)'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함

[그림] 주일 교회에서 주로 드리는 예배 (학생 예배 있는 교회 기준) (%)



[그림] 어른 예배를 주로 드리는 이유(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 학생 예배 만족 이유, '활력있는 예배' 학생 예배 불만 이유, '지루함'

- 학생 예배 만족 이유는 '예배 분위기가 활기차다'가 35%로 가장 높고, 불만 이유는 '설교가 지루하다'가 51%로 나타나, 활기찬 예배 분위기와 설교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앞에서 지도 목사/전도사에 대한 만족도가 62%인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결과에서 성인 개신교인의 담임목사 만족도 70%에 비해 낮아, 지도 목회자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학생 예배 만족 이유(상위 4위) (%)



[그림] 학생 예배 불만족 이유(상위 4위)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 공과 공부 만족 이유, ‘교사의 관심과 사랑, 배움의 유익’ 공과 공부 불만 이유, ‘가르치는 방식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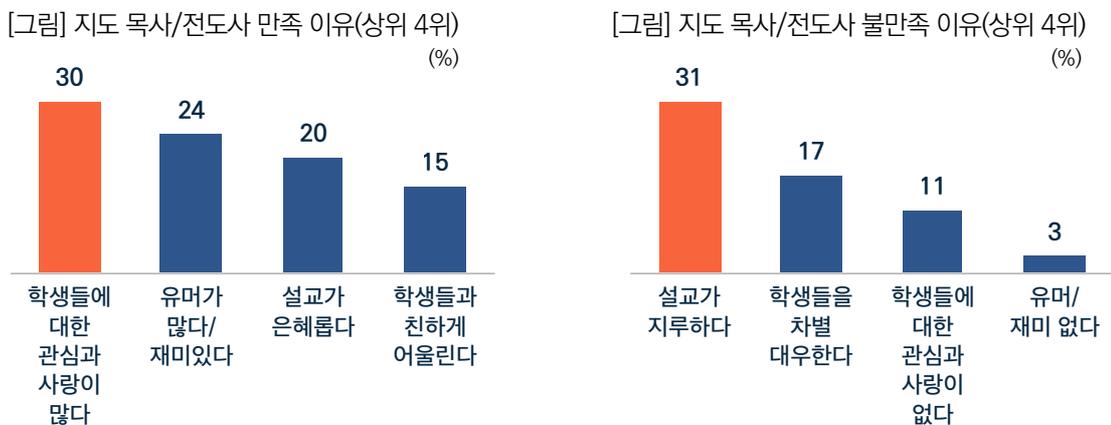
- 공과 공부 만족 이유는 교사의 관심과 사랑, 공과 준비, 가르치는 방식 등 교사 요인이 주를 이룸
- 공과 공부 불만 이유 역시 교사의 준비성, 가르치는 방식 등의 교사 요인이 절대적으로 높음
- 전체적으로 만족, 불만족 요인이 모두 교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리쿠르팅, 교사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 ● 지도 목사/전도사 만족 이유, ‘관심과 사랑’ 지도 목사/전도사 불만 이유, ‘지루한 설교, 차별 대우’

- 지도 목사/전도사 만족 이유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다’가 30%로 가장 높고, ‘유머가 많다/재미있다’ 24% 등으로 지도자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임
- 불만 이유는 ‘지루한 설교’가 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차별 대우’ 17%, ‘관심과 사랑 없음’ 11% 등의 순으로, 설교에 있어서 보다 임팩트한 설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4



##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어머니' 32% > '교회 학교 교사' 6%

-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높게 1위로 지적됨. 반면 '교회학교 교사'는 6%로 하위권으로 밀림
-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아버지 영향력(23%)이 2번째로 응답됨
-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 교회 '목사/전도사', '교회 친구/선후배', '학교 친구/선후배' 비율이 서로 엇비슷하게 높음. 비기독교 가정 학생의 경우 교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신앙적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상위 6위) (%)



[그림] 신앙 영향자(부모 종교별)

순위	영향자	부모 모두 개신교인 (%)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
1위	어머니	37%	학교 친구/선후배 26%
2위	아버지	23%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24%
3위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13%	교회 친구/선후배 22%
4위	교회 친구/선후배	8%	교회 학교 선생님 11%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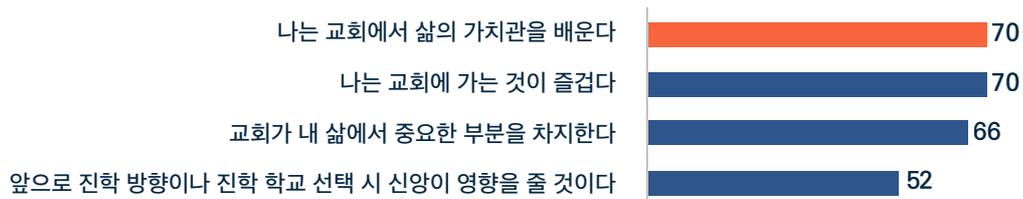
5



## '나는 교회에서 삶의 가치관을 배운다' 70%

- 교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몇가지 속성을 질문을 한 후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을 받았는데(4점 척도), 그 결과 '교회에서 삶의 가치관을 배운다'고 응답한 학생이 70%나 되었고, 학생 3명 중 2명(66%)은 '교회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대답하였음
- 또 절반 정도(52%)의 학생은 실제로 향후 진학 방향과 관련 신앙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교회에 대한 인식(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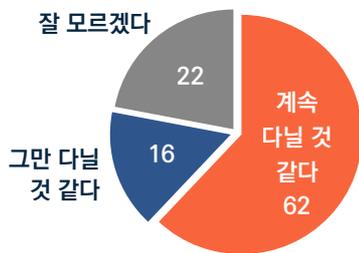
6



## 성인이 된 후 교회 계속 출석 의향, 10명 중 4명 교회 이탈 우려

- 성인이 된 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은지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계속 다닐 것 같다' 62%, '그만 다닐 것 같다' 16%, '잘 모르겠다' 22%로, 10명 중 4명(38%)은 계속 다닐 생각이 없거나 계속 다닐 확신이 없다고 하여 향후 이탈 우려를 보임
- 부모의 종교에 따라 향후 교회 계속 출석 의향률이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68%인데 반해,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는 45%로 상대적으로 더 낮아, 교회에서 기독교 가정이 아닌 학생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성인 이후 교회 계속 출석 의향 (%)



[그림] 성인 이후 교회 '계속 다닐 것 같다' (부모 종교별)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7



## 가나안 중고생의 교회 이탈 시기, '중학교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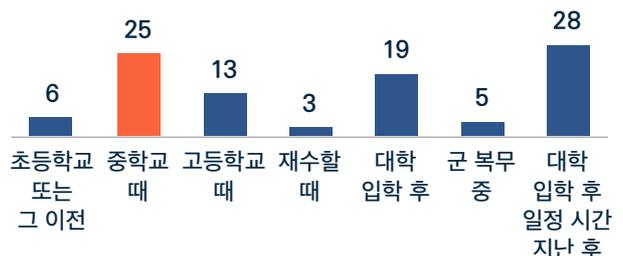
-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은 개신교 중고생들에게 언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 물어본 결과, '중학교 때'가 가장 높게 응답됨
-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실시한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가나안 대학생들의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물었는데, 이 조사 결과도 '중학교 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한국 교회 교회학교는 중학교 시절 가정과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이 신앙과 교회관을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향후 교회학교 성장의 결정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가나안 중고생의 교회 이탈 시기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가나안 중고생 2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그림] 가나안 대학생의 교회 이탈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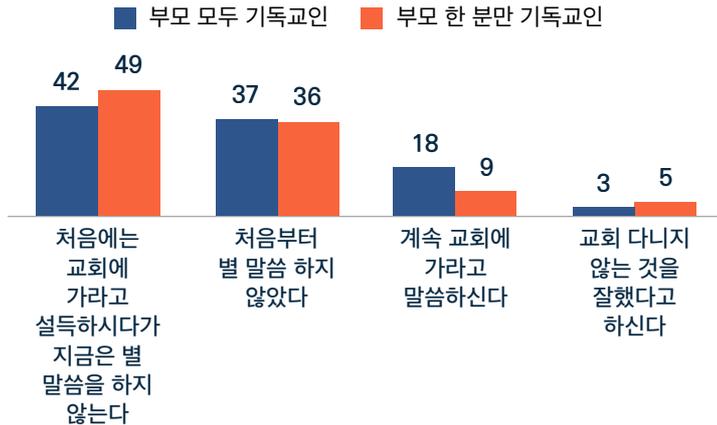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2017.09. (전국 대학생 1,299명, 온라인조사, 2017.07~08)

## ● 교회 이탈 했을 때 개신교인 부모 반응, '처음부터 별 말씀 안 했다' 37%

- 교회를 떠났을 때 부모의 반응을 질문한 결과, 부모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처음에는 교회에 가라고 설득하시다가 지금은 별 말씀 하지 않는다' 42%, '처음부터 별 말씀을 하지 않았다' 37%로 대부분의 개신교인 부모가 자녀의 교회 이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자녀의 교회 이탈 시 때 부모님의 반응(부모의 종교별)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대21세기교회연구소,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2019.12.06. (가나안 종교생 200명, 온라인 조사, 2019.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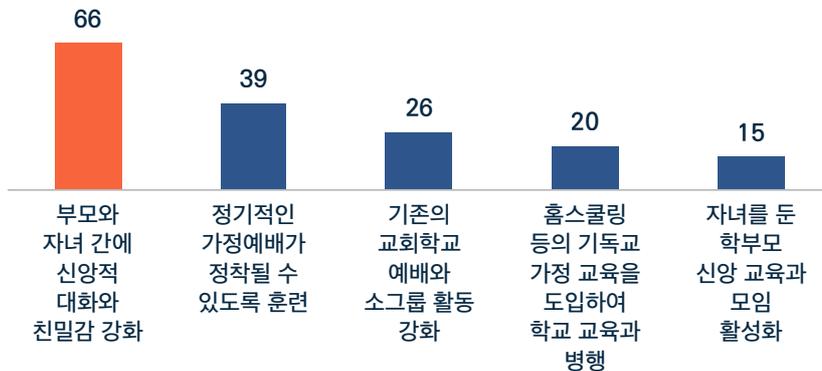
## 8



##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신앙교육 방향, 부모 자녀 간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 66%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지난 4월 초,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다음세대 신앙교육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 의견이 66%로 압도적으로 높은 1위로 지적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신앙 교육 방향(개신교인)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1~06, 목회데이터연구소/지연컴리서치



## 시사점

교회에 중고생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 저출산이므로 청소년 인구가 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학생도 있고(9쪽 참조)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주는 것도 있다.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교회에서 기독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

청소년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이다. 신앙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청소년을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신앙적 유대감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이른바 '꼰대'가 되거나,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해서 오히려 자녀에게 역효과를 낼을 우려도 많다. 따라서 교회는 부모가 자녀와 신앙적 교류를 하는 방법과 지도하는 방법 등을 찾아서 부모를 교육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적어도 이 이슈가 현재의 교회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 결과 중고등부 예배는 전면적인 갱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분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중고등부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노잼'(재미없다는 뜻의 줄임말)이다. '노잼' 예배는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주범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예배는 활기차야 하며, 설교는 짧고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예배의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 중고등부 지도들이 명심해야 부분이다.

교회학교 지도자(담당 목회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중고등부 지도자는 '관심과 사랑'이 많은 지도자다.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야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는데 청소년들은 입시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경쟁 관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과 학습으로 보내므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늘 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교회학교 지도자가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때 이들은 의지하게 되고, 중고등부가 즐거워지며, 그 가운데서 좋은 신앙이 자라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교회 이탈율이 가장 심한 연령대는 중학교 때이다. 아마도 초등학교 졸업 후 자아가 형성될 시기에 종교를 스스로 딱딱뜨리는 때라서 그런 것 같다. 교회 내 청년/장년 중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성이 가장 뛰어난 인재를 중등부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하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시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찾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공 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민 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 사 결과'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소개한다.

1



##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시 아무런 증상 없었다(무증상)' 36%

-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와 관련 확진자의 3명 중 1명 이상(36%)이 확진 시 아무런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것(무증상 감염자)으로 나타남
- 유증상자의 증상으로는 '발열'이 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육통' 61%, '인후통' 60%, '두통' 59%, '냄새 못 맡음'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확진시 증상 여부(확진자) (%)



[그림] 확진자의 증상(중복 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2020.07.01. (코로나19 확진자 110명, 웹 조사, 2020.06.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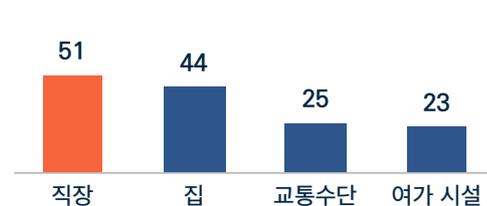
### ● 확진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위, '확진자와 접촉' 66%

- 확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위를 질문한 결과, '확진자와 접촉'이 66%로 가장 높았고, '증상이 있었음' 43%, '해외 입국' 21% 순으로 응답함
- 또한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장소로는 '직장'이 51%, '집' 44%, '교통수단' 25%, '여가 시설' 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종교 시설은 11%로 6위 권임

[그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유(복수 응답, 상위 3위) (%)



[그림] 확진자와의 접촉 장소(상위 4위, 복수 응답) (%)



\*자료 출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2020.7.1. (코로나19 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 웹 조사, 2020.06.03-17)

## ● 확진자, 확진 판정 받았을 때 감정, '충격' 44% 1위 접촉자, 접촉자로 격리 필요하다고 판정 받았을 때 감정, '불안' 51% 1위

-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당 판정을 받은 후 감정 상태를 물은 결과, 확진자는 '충격' 감정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접촉자는 '불안' 감정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확진/접촉 판정받았을 때 감정(상위 5위, 확진자 vs 접촉자) (%)



\*자료 출처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영순 교수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2020.07.01. (코로나19 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 경기도민 2,589명, 웹 조사, 2020.06.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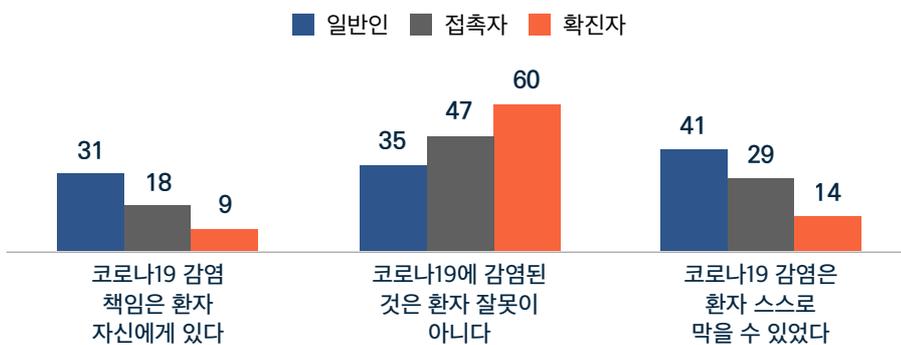
## 2



## 코로나19 감염 책임, 일반인, 접촉자, 확진자 세 그룹 간 인식 차이 크다

- 코로나19 감염 책임과 관련해서 일반인, 접촉자, 확진자에게 각각 질문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인' 31%, '접촉자' 18%, '환자' 9%로 각각 '그렇다'고 응답해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환자나 접촉자에 비해 환자 책임성을 더 높게 인식함
- '코로나19 감염에 감염된 것은 환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인' 35%, 접촉자 47%, 확진자 60%가 각각 '그렇다'고 인식해 각 그룹간 상이한 인식 차이를 보였음
- '코로나19 감염은 환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반인' 41%, 접촉자 29%, 확진자 14%로 각각 '그렇다'고 응답하여 앞의 두 개 문항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임
- 전체적으로 일반인은 '감염의 환자 책임'에 대해 크게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본인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확진자나 접촉자는 감염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신의 책임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감염 책임에 대한 의견('그렇다' 응답률, 일반인 vs 접촉자 vs 확진자) (%)



\*자료 출처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영순 교수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2020.07.01. (코로나19 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 경기도민 2,589명, 웹 조사, 2020.06.0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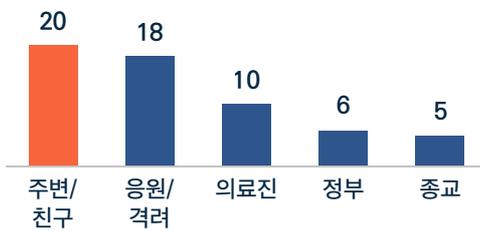
3



## 힘든 시간 극복하도록 도운 힘, 확진자는 ‘주변/친구의 응원과 격려’, 접촉자는 ‘가족’

- 확진자를 대상(응답 104건)으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었는지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주변/친구’ 20%, ‘응원/격려’ 18%, ‘의료진’ 10%, ‘정부’ 6%, ‘종교’ 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접촉자들(응답 1,227건)은 ‘가족’ 21%, ‘주변 지인/친구’ 14%, ‘위로/격려’ 10%, ‘정부’ 6%, ‘지원’ 4%, ‘도움/생활/영상’ 3%로 나타남
- 특히 접촉자들의 경우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확진자가 힘든 시간 극복하도록 도운 힘\*\*



[그림] 접촉자가 힘든 시간 극복하도록 도운 힘\*\*\*



\*자료 출처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2020.07.01. (코로나19 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 경기도민 2,589명, 웹 조사, 2020.06.03-17)

\*\*최소 빈도수를 1로 하여 전체 빈도수에 항목당 빈도수를 비율로 표시함  
\*\*\*최소 빈도수를 2로 하여 전체 빈도수에 항목당 빈도수를 비율로 표시함

3



##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코로나 19  
관련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코로나19 6차 국민인식조사](#)

경향신문\_2020.07.08.

[코로나19로 디지털 중독 위험 ↑ ...'언택트' 시대의 초상](#)

연합뉴스\_2020.07.06.

[코로나 6달만에... 빈곤층 증가, 11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락](#)

매일경제\_2020.07.08.

일반 사회 / 기타

[5집 중 2집 나홀로\(1인\) 가구](#)

조선일보\_2020.07.09.

[가장 인기 어려운 구직자의 말은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_2020.07.09.

[원격수업 속 중위권 성적 추락...교육 격차 더 벌어졌다](#)

한겨레\_2020.07.08.

[운동선수 폭력 실태 통계](#)

조선일보\_2020.07.06.

[2020 한국인 정체성 조사](#)

중앙일보\_2020.07.06.

트렌드

[한국의 Z세대 특성](#)

조선일보\_2020.07.08.

[오픈뱅킹 반년만에 2000만명 가입](#)

동아일보\_2020.07.07.

### 스토리가 있는 기사 큐레이션

[한국 사회에서 20대 층이란!](#)

세계일보\_2020.07.06.

[독서의 중요성 ; '한 입 콘텐츠'는 산만한 뇌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중앙일보\_2020.07.06.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